

SDMX(Statistical Data and
Metadata Exchange)

IMF Workshop

통 계 청

국제통계과

목 차

I. 회의개요	
II. 회의 주요내용 및 검토	
1. SDMX 논의배경	
2. SDMX 국외현황	
III. 국내현황 및 도입방향	
1. 통계자료전달 국내현황	
2. SDMX 도입방향	
IV. 회의자료	
1. 회의일정	
2. 회의참가자	
3. IMF 발표자료	
4. 호주의 Case Study	

I . 회의개요

1. 회의명 : 통계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에 관한 워크숍
(Workshop on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)
2. 배경 : 국가내 기업과 정부기관간 및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통계 정보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성(duplication)과 비효율성(inefficiency)을 개선하기 위하여 IMF, BIS, OECD, EUROSTAT, UN 등 6개의 국제기구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임
3. 출장기간 : 9.4 ~ 9.8(5일간)
4. 회의장소 :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
5. 회의참석자 : 국내 - 최한경(통계청 5급)
6. 회의일정
 - 첫째날(9월 6일)
 - SDMX의 목적과 진행현황
 - GESMES 등 통계자료 전자전달체계(BIS, ECB, IMF)
 - 인터넷통한 전달현황 및 과제(IMF, EUROSTAT, OECD)
 - 전세계의 추진사례 소개(CEMLA, 인도, 남아공)
 - SDMX 지원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
 - XML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(OASIS)
 - 디지털정보 공급사슬 성공사례 소개(호주)
 - 통계정보 교환에 대한 새로운 견해(IMF, BIS)
 - 둘째날(9월 7일)
 - SDMX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개
 - 세계적, 지역적인 E-standard 추진사례(eBES)
 - 민간부문의 E-standard 추진사례(XBRL그룹)
 - 공공부문의 표준화작업의 추진방향(NIST)
 - 전체토론

II. 회의 주요내용

○ SDMX 논의 배경

- 기업, 은행 등은 각종 통계자료를 각 국가의 통계청, 중앙은행, 재무부, 국세청 등의 여러 기관에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집계함
- 국제적으로도 중앙은행, 통계청, 재무부 등의 기관은 IMF, OECD, BIS 등의 국제기구에 유사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공함
- 통계정보 전달은 복잡한 공급사슬(Supply Chain)의 전달체계로 업무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

○ SDMX 국외 현황

-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과 연계하여 ECB, EUROSTAT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90년부터 EDI(전자정보교환체계)를 도입 추진하여 GESMES(Generic Statistical Message)라는 자료교환시스템 구축함
 - GESMES는 현재 15개국 유럽 중앙은행, 4개국 통계청, 5개 국제기구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
- 미국의 경우 FRB(Federal Reserve Board), FFIEC(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), FDIC(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) 등의 금융감독기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임
 - 은행, 기업체, 공인회계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작업
 - 민간부분에서는 유럽식 GESMES보다는 문서교환 및 공유에 강점이 있는 XML(Extensible Markup Language)의 도입에 적극적임

- IMF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음
 - 기존의 Html방식으로 작성된 SDDS 및 GDDS를 통한 자료교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XML 또는 GESMES 등의 도입을 검토중임
 - 향후 다른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SDMX의 추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
 - 기타 몇 개의 국가에서 SDMX를 자체적으로 시도
 - 호주의 경우, 미국 FFIEC와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감독기구들과 은행들간의 XML을 기초한 교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40%이상 향상시킴
 - 남아프리카공화국, 인도 등의 연방은행에서도 XML을 도입하여 통계자료의 Reporting업무를 개선함
 - OECD의 경우 SDMX의 추진에 예상되는 통계 및 정보의 표준화, 용어의 표준화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부른 추진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우려하기도 함
- ∴ 결론적으로 현재 SDMX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다양한 국가 및 기구의 입장이 있었으나, SDMX의 도입을 통한 기존의 Manual Reporting에서 **Digital Reporting**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됨

III. 국내 현황 및 도입방향

○ 통계자료전달 국내 현황

- 기업, 은행 등의 각종조직은 국내 한국은행, 재정경제부, 금융감독원, 통계청, 국세청 등의 기관에 자료를 중복하여 제공하고 있음
 - 이러한 업무중복은 통계 적시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됨
- 한국은행, 재경부, 감독원, 통계청 등의 기관은 각 국제기구에 관련통계를 제공하고 있음
 - IMF 통계의 경우는 통계청에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고, OECD통계는 각 해당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
- 통계자료의 제공은 IMF의 경우 ARC, NSDP, Metadata 등을 Html의 방식으로 작성하고 제공하고 있으며, OECD의 경우 해당통계의 시계열자료를 제공시점별로 조사표 또는 Excel파일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

○ SDMX 도입 방향

- IMF,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XML 등을 이용한 SDMX체계로 전환할 경우 현재 자료제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함
 - 제공창구인 통계청만의 자료제공시스템 변경은 충분한 개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움
- 통계청, 중앙은행, 재무부, 금감원, 국세청 등의 국내 기관간의 Community를 형성하여 공동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
 - 은행, 기업 등의 민간부문도 충분한 전환의 유인이 존재하므로 Community에 참여시키는 것도 필요함
 - 기술적인 부분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참여도 필수적임
- 국내의 경우 정형하기 쉬운 데이터인 금융통계자료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

[출장후기]

- 회의 전반에 관하여
 - 금번 회의는 IMF의 통계국장인 Carol S. Carson과 BIS 정보통계부 대표인 Paul Van den Bergh의 주재하에 세계 50개국의 중앙은행 및 통계청 담당자와 각 국제기구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임
 - 각국의 경우 IMF의 SDDS coordinator를 중심으로 참석하였고,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은행에서 IMF창구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중앙은행의 담당자들이 더 많이 참석함
 - 전반적인 회의를 이끌어가는 IMF는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, 회의에 참석한 미국 연방은행 등의 기구와 민간부문대표로 참석한 기업들은 XML을 선호하는 입장임
 - 기업부문 참가자들은 GESMES에서 XML로의 전환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유럽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인상적임
 - 유럽기반의 기구 및 국가들은 GESMES에 대한 선투자로 인하여 XML로의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함
 - 대부분의 중남미 및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상황의 문제점과 전환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했고, IMF의 입장결정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려는 태도임
 - 중남미의 경우 IMF에 더욱 의존적인 모습을 보임
 - 일본의 경우 BIS에서 2002년부터 GESMES로 자료제공을 요구하여 두 시스템의 복수 또는 중복도입을 우려함
 - 참가자중 미국의 FRB에서 근무하는 PO KIM이라는 한국분을 통해서 미국내의 5개 금융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은행들과 Community를 형성하여 관련 작업을 신중히 준비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음